

# '23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6.21	회의실	8/13	4	1	13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조경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6	3	1	0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 차 산업은 광주전남 지역기업육성과 미래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며 언론의 계속된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인공지능 기업 업무협약(6.28),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중요성(7.3), <시사 온> 민선 8기 1년 평가(6.30) 등 방송 조치	'23.6.
"	광주비엔날레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데스크> 내년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매개로 전시(6.26), 광주비엔날레 폐막 흥행 성공(7.9) 등 방송 조치	"
"	<시사 온> 여성 진행자, 말의 속도가 빨라 프로그램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음. 더 진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진행 필요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7.3)	"
"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갈라져 있는 국민 의견을 모으는 취재와 프로그램 필요	-<뉴스데스크> 원전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6.23), 폭등한 소금값 걱정(6.22), <본방을 보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6.13), <시사 용광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당장 우리 수산업은?(7.20) 등 방송 조치	"
"	<시사 온> 전라도 천 년사 역사 왜곡 논란 관련, 자료 등 시각적인 효과 없어 아쉬움	-<시사 온> 방송 시 자료화면, 그래픽 등 활용 조치(6.30, 7.7)	"
교양	<광주MBC 보다>, 리포터가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대답하는 장면 부적절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7.3)	"
"	<본방을 보자>에서 정의당 문정인 위원장 개인 의견만 주장해 편파적인 느낌이 들었음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7.3)	"
"	<본방을 보자> 김치 오락실 프로젝트 소개 시 진행자와 인터뷰이의 음성이 겹치는 등 진행 어색함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7.3)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가사 자막이 없어 아쉬움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7.3)	"
총 건수		9건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 차 산업은 광주전남 지역기업육성과 미래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며 언론의 계속된 관심 필요(곽선희)	광주·전남 미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보도하겠음	○		
"	광주비엔날레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김영신)	광주비엔날레 폐막에 맞춰 개최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예정임	○		
"	<시사 온> 여성 진행자, 말의 속도가 빨라 프로그램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음. 더 진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진행 필요(김영신)	<시사 온>과 <시사 용광로>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 중이며, 진행자 부분을 검토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갈라져 있는 국민 의견을 모으는 취재와 프로그램 필요(심상돈)	7월 20일 <시사 용광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집중 토론 주제로 선정했으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음	○		
"	<시사 온> 전라도 천 년사 역사 왜곡 논란 관련, 자료 등 시각적인	그래픽이나 자료화면 등이 필요할 때는 미리 준비해 시청자의 이해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효과 없어 아쉬움(오광호)	돕도록 하겠음			
"	전라도 천 년사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조경완)	전라도 천 년사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시사 온> 아이템으로 한 차례 더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교양	<광주MBC 보다>, 리포터가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대답하는 장면 부적절(고아라)	다른 지역 계열사에서 제작한 아이템을 선정해 방송한 내용으로 꼼꼼한 검수를 통해 시청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	<본방을 보자>에서 정의당 문정인 위원장 개인 의견만 주장해 편파적인 느낌이 들었음(곽선희)	<본방을 보자> 민주 도시는 송기석 변호사, 김명진 대표, 문정은 위원장 등 각각의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코너임. 개인적인 의견제시도 가능하지만 그 근거를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 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	<본방을 보자> 김치 오락실 프로젝트 소개 시 진행자와 인터뷰이의 음성이 겹치는 등 진행 어색함(오광호)	더욱 정교하게 대본을 구성하도록 하겠음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가사 자막이 없어 아쉬움(고아라)	가사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더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에 신경쓰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6월)

일시	2023. 6. 21. 수. 오후 5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고아라, 박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조경완(8명)	
	회사	김낙곤 사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 경영심의팀장(4명)	

## ■ 회의 내용

### ○ 위촉장 수여

-고아라, 박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조경완 위원 순으로 위촉장을 수여함

### ○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송경용 위원이 조경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호선함

○ 조경완 위원장 : -반갑다. 시청자위원회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조직이다. 하지만 법정 조직인 시청자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해갈에는 부족하겠지만 애타게 기다렸던 비가 내렸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행정관료들이 노력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순천만에는 기록적인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인천 전세 사건 같은 것도 전세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변혁의 시기에 광주MBC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다. 항상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란다. 우리 시청자위원회가 제작 전반에 애정 어린 조언을 했지만, 그동안 광주MBC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한 것은 아난가 생각했다. 광주MBC가 경영이나 제작으로 더 진일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청자위원회가 되도록 에너지를 모아보도록 하자. 김안나 위원께서 위원회에 합류하셨는데 환영한다. 새롭게 모시게 돼 반갑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경완 위원장님, 박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청자가 주인인 광주MBC를 잘 지켜봐 주시고 채찍 해주시길 바란다. 연임하게 되신 위원님들도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자리에 못 오신 위원님들은 다음 자리에서 인사할 수 있겠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정하고 공정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올해 야심 차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먼저 영산강 그란폰도를 성공리에 잘 마쳤다. 하반기에는 김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영산강 그란폰도는 지상파방송 1시간, 유튜브 중계를 3시간 동안 했다. 안전관리, 대회운영 등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동호인 1,4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란폰도 대회로는 최초로 생중계해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관광마케팅 축제로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치 프로젝트는 콘텐츠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5월 25일에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했고, 김치 캠페인, 김치 대전을 5.18광장과 금남로에서 할 예정이다, 이 이벤트를 통해 김치가 케이푸드의 중심이라는 게 알려질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영산강 그란폰도 참여 지자체는 어디였나?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나주시가 참여를 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관심을 보여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박선희 부위원장 : -광주시가 김치 축제를 하는데 같이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나?

○ 김낙곤 사장 : -광주시와 MOU를 했습니다만, 김치 대전을 통해 김장이라는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고자 한다.

○ 오광호 위원 : -시민이 함께 참가하고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성공을 하는 것 같다. 다른 행사에도 그런 요소

를 확산하면 좋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굉장히 어렵다. 주인공은 시민이 되고 관람객이 되어야 하는데 작품해설을 도슨트에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면 광주비엔날레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와 작품이 매치가 안 돼 아쉬웠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5, 6월에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 빠진 내용에 주목하는 등 여러모로 보도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옥죄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는데, 강제동원시민모임의 활동을 위촉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프레임 짜는 정부나 정당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 등에 대해 보도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광주 제작물을 직접 올리기 시작했으며, 광주MBC 뉴스 구독자는 7만 2천 명이 됐다. 광주·목포·여수 뉴스 채널을 하나로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3사 공동제작 <시사 용광로>와 <시사 온>에서는 민선 8기 1년을 진단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다.

- 고아라 위원 : -6월 19일 <광주MBC 보다>에서는 전반적으로 청량한 화면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히는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꿀 따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이후 신선한 음식 컷들도 화면 색감과 촬영 각도들이 훌륭했다. 요즘 장년층에 많은 관심을 받는 파크 골프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즐기고 계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었다. 뒷부분 송어를 시식하는 장면에서 음식을 설명해주시고 리포터가 대답하는 중에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대답하는 장면이 으응~ 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음식을 삼키고 '네'라고 대답하시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6월 16일 <문화콘서트 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에서 진행됐다. 뮤지션과 사회자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매우 보기 좋았다. 무대의 전체 샷과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아름다웠다. 카메라 화면 전환도 다양해서 뮤지션의 섬세한 표현들이 모두 시청자에게 담겼다. 뮤지션들의 연주도 훌륭하고 음원 믹싱 퀄리티도 매우 우수했다. 무대 조명 및 전체 디자인도 정말 예뻐다. 아쉬웠던 부분은 가사를 띄워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아시아문화전당 곳곳을 소개하고 전시도 소개해서 광주 시민으로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될 것 같다. 또 인디뮤지션과 인지도 있는 뮤지션이 적절히 섞여 있어 대중들에게도 충분한 공감과 소통이 되었을 것 같다.

- 관선희 부위원장 : -<본방을 보자>에서 6월 3일 비엔날레 야외광장에서 김치 오락실 프로젝트 소식을 접하면서,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퓨전요리에 대해 색다른 느낌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김치를 광주MBC가 광주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지산동에서 조선대 우회도로 개통 소식은 설명은 하였지만, 차량 오가는 화면보다는 신설도로인 만큼 구간표시를 화면에 그림으로 도로표지를 만들어 설명했으면 구간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계속된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 조치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계속 <본방을 보자>에서 다룬다 하여 고무적이었다. 그밖에 노정갈등과 갈등 해결방안, 간호법 등 의제 언급할 때 정의당 문정인 위원장의 개인 의견 주장만 보도되어 편파적 느낌이 들었다. 화순 탄광 폐광 후 환경과 인권문제 지적을 공감하며 광부들 40~50% 정도 재취업교육을 통한 생계 문제와 석탄의 대체산업과 먹거리 등 관심 가져주어야 할 듯하다. 국민의힘 주관의 예산심의위원회의 “광주 전남 특화단지 조성”은 광주 전남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길이다. 대통령 공약인 국가 균형발전 실천은 향후 인구 유입 효과 크다 하겠다. 첨단 용역은 기업과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핵심이며 향후 반도체 특성화를 통한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 차 산업은 광주전남 지역기업육성과 미래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하며 언론의 계속된 관심 필요하다 하겠다. 재난 상황별 대피요령 방법을 통한 재난탈출을 위한 방법과 위급재난문자가 오면 신분증을 지참, 생수, 비상약 등 상시준비와 대피소 585개소 소개했다.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날 때 지하철역이나 공공건물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대피요령 등 <본방을 보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 반가웠고 만족감 느껴졌다. <본방을 보자>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합당한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지도 줄 수 있어 만족감 높인다 하겠다.

- 김영신 위원 :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제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인 <시사 ON>의 지난주 주제는 <광주비엔날레의 지난 30년과 미래>였다. 방송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는 30년이 다 돼

하지만 여전히 명성 대비 부족한 화제성과 매회 반복되는 작품성 논란 등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할 비엔날레가 광주 시민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개최되는 비엔날레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로 현재 폐막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인데 광주 시민들에게조차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한국방문의 해 명예 위원으로 광주비엔날레에 와서 코 없는 코끼리 작품을 감상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비엔날레 주최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였다면 우리 MBC 뉴스에서도 기삿거리로 더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비엔날레가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라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 주최 측에서는 관광객 30만 명 넘어서서 순항 중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비엔날레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비엔날레를 위해서도 꾸준히 광주MBC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방송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연빛나 앵커가 젊은 피로서 통통 튀는 느낌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의 속도가 좀 빠른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방송의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좀 더 진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조경완 위원장 : -<시사 온>에서 비엔날레 관련 섭외를 할 때 음악을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적절했는가. 연빛나 아나운서가 시간에 쫓겨 그랬는지 말이 빠르기도 했다. 비엔날레의 대중성과 작품성의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다.
- 송경용 위원 : -<광주MBC 뉴스데스크> “가뭄뿐 아니라 홍수대비도 해야 합니다.” 보도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작년과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불과 3년 전에는 5백 년 만의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 또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홍수대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대비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또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위험요소를 공유하여 미리 위험방지를 하자는 것을 알려주어서 좋았다. “도시철도 공사로 주민들은 불안한데 광주시는 남의 일인 양” 보도도 관심이 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여러 종류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광주시는 느긋한 반응을 보인다. 땅이 갈라지고 있으니 조사를 서둘러달라는 요구에도, 상수도관 파열로 물난리 피해를 호소해도 광주시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상인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건물까지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지반 변형으로 여러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보험 절차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겠다고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해결해야 하는 광주의 문제를 잘 알려주는 뉴스여서 좋았다. “광주시립요양병원서 옴 증상 의심환자 90명 가까이... 방역은 뒷전”에서는 병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 측이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피부질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라고 했다. 옴 환자들을 격리도 안 하고 제대로 방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도 이러다 확산이 커진 건데 더 커지기 전에 격리 조치하고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 알려주어서 좋았다.
- 심상돈 위원 : -<본방을 보자> 6월 13일에 방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고, 어민 반발이 극심하다고 했다. 전국어민회 총연맹 3,000여 명이 서울에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했다.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는 한국수산물위위원회 완도군 연합회 위장명 감사가 출연했다. 방류를 위한 설비 시험 운전 시작에 대해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원전 주변의 자국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믿을 수 없다. 완도군은 양식을 많이 하며 일본으로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 수출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터뷰였다. 국민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국가와 정부의 대응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일본이 방류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명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실제로 막을 수 없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주변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여 과학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과 국내의 수산물 판매가 지속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거짓 정보나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사실과 과학에 기초하여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갈라져 있는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적절한 취재와 프로그램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온>에서 전라도 천 년사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하여 편찬위에서 이강래 교수, 이근우 교수, 도민연대에서 박형준 도민연대대표, 이덕일 소장이 출연해 토론하였다. 전라도 천 년사는 '전라도'라는 명칭이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정명(定名) 되어 1,0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개한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5천 년 역사를 총망라한 사서라고 한다. 전북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전남 강진·해남을 친미다레라고 '일본서기'의 임나 4현 지명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토론의 주제로 다뤘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가 '전라도 천 년사'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토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강래 교수가 직접 준비한 그림 패널 외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거의 없어서 내용에 방송에 지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본방을 보자>에서 6월 3일, 4일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김치 오락실 프로젝트' 소개를 위해 짧은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이 송출되는 동안 아나운서들이 행사에 관해 소개 멘트를 하였는데,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음성이 겹치거나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는 아무런 멘트가 이어지지 않는 등 진행이 어색했다. 영상에 잔잔한 BGM이 삽입되었으면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김치 퓨전요리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요리들인지 소개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학교 교내를 관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지산동~조선대 우회 도로'가 9일에 개통한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신생 도로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도로의 진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줘서 좋았다.

- 조경선 위원장 : -<시사 온> 전라도 천 년사 출연 섭의를 참 잘했다.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카메라 앞에 불러들였는지 궁금했다. 디펜스 하는 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한다. 이강래 선생도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답변을 했고, 이덕일 소장도 원만하게 했다. 조현성 국장이나 연빛나 아나운서가 준비를 잘했다. 지금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학술토론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언제 인가 또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란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편찬 쪽은 광주MBC를 믿어 출연하신 것 같다. 누구도 우리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 말 하나하나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진행자들이 공부하고 준비를 더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양측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다.
- 조경선 위원장 :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김안나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란다.
- 김안나 위원 : -개인적으로는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유튜브로 MBC 뉴스만 보고 있다. 다음에는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 조경선 위원장 : -시간이 많이 경과 됐다. 2023년 새 위원회의 첫 회의를 마치겠다. 끝.